

조선대학교 본관과 건축가 김한섭의 상관성에 관한 고찰 : 1940~50년대를 중심으로

A study of correlation between Architect, Kim Han-sup's Architecture and the main building of Chosun University in the 1940's to 1950's

김 명 선

Kim, Myoung-Seon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외부연구원)

김 용 춘*

Kim, Yong-Cchun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Abstract

For the proper preservation and utilisation of Regional Modern Heritage Buildings,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history of local modern architecture based on a broad understanding of the region and also to architectural history. The aim of this study is expand the awareness and multi-faceted interpretation of modern architecture in Kwangju in the 1940's to 1950's, by exploring the origin of regional modern architecture from new perspectives.

As a part of the discussions of the perspectives, this study will be therefore explained with the regional correlations between the architect Kim Han-seop's works and activity, influential politicians, strong enthusiasm of education,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main building of Chosun University, architecture schools and association in Kwangju. Then, it will be finalised that Kim Han-seop and the main building of Chosun University are directly and indirectly correlated and affected each other strongly.

주제어 : 지역근대건축유산, 조선대학교 본관, 건축가 김한섭, 건축적 상관성

Keywords : Regional modern heritage buildings, the main building of Chosun University, The architect Kim Han-seop, Architectural correlation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역사 문화자산으로서 지역 근대건축유산의 가치가 인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실측조사 및 보존·활용방안

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근대건축유산의 올바른 보존 및 활용을 위해서는 지역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역 근대건축의 연원 탐구와 다각적 측면의 건축사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지역 근대건축유산이 역사적·문화적 유물로서 시대적 상황과 건축가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근대와 현대를 잇는 매개체이자 도시 건축문화의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상징적 실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대학교 본관¹⁾은 광주지역의 주

* Corresponding Author : yckim@chosun.ac.kr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본연구사업임. 과제번호: 2018-0552

이 논문은 2017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김용춘(2017) 2018년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의 일부를 토대로 수정·보완한 연구임.

1) 조선대학교 본관은 학사운영의 수요에 따른 증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총 19개의 박공지붕과 2개의 원형동으로 구성된 현재의

요한 근대건축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가치 및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 등록문화재 제94호로 등록되었으며, 이후 조선대학교 본관에 대한 다양한 사료 발굴과 건축물에 대한 정밀한 실측조사²⁾ 및 아카이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된 여러 연구는 조선대학교 본관의 역사적 고찰과 건축적 특성 분석에 집중되어 있어 조선대학교 본관의 건축가³⁾에 대한 정확한 자료 및 연구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건축사적 고찰은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조선대학교 건립과 동시대의 건축가 김한섭(金漢涉)은 해방 이후 광주·전남지역의 근대건축 전개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한국 근대건축의 2세대 건축가이다. 당시 건축가 김한섭의 건축 활동을 살펴보면, 관련 문헌고찰 및 선행 연구뿐만 아니라 한정된 광주·전남지역 건축계의 현황과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역 건축가로서 그의 영향력은 상당히 대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대학교 본관과 건축가 김한섭에 관련한 사실적인 자료가 현존하지 않다 하더라도 당시 지역의 가장 높은 초고층⁴⁾건축물로서 조선대학교 본관과 광주·전남지역 건축계의 거장이었던 김한섭의 연관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근대건축의 다각적인 건축사적 논의의 일환으로서, 해방 이후 광주·전남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당시대 지역의 주요 관심사였던 조선대학교 본관과 건축가 김한섭의 직·간접적인 상관성을 고찰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지역근대건축의 연원을 탐구하고 지역건축가와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지역근대건축에 대한 인식의 확대 및 다면적 재해석을 해보고자 한다.

모습을 완성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1940·50년에 건축되어져 등록문화재 제 94호로 지정된 조선대학교 본관(총 5개 박공부분)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선대학교 본관 기록화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7

3) 『조선대학교 본관 기록화 조사보고서』에서 1948년에 조선대학교에 교수로 근무한 류연옥(GA엔지니어링대표, 조선대학교 건축과 7회 졸업)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선대학교 본관의 설계자를 이길성이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고증자료, 학술자료 및 당시 건축 활동(대한건축학회 및 전남건축문화협회 회원활동 등)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관점의 건축적 연원을 탐구 위하여 조선대학교 본관의 건축가로서 '이길성'의 기록을 배제하고, 지역의 시대상황에 따른 고찰을 통해 조선대학교 본관의 건축적 연원에 대한 재해석을 해보고자 한다.

4) 박일항의 『1950년 대 수도재건 과정에서 나타난 건물의 고층화』의 1950년대 후반의 고층건물의 신축 상황의 설명에서 1957년에는 4~7층 높이의 건물이 36동이 신축되면서 해방전후 고층건물이 최고기록을 수립하였다고 경향신문의 『곧 잘되어가는 수도재건』 1957.12.11. 을 인용하고 있다. 이는 1947년, 조선대학교본관 착공이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당시 지역에서 초고층 건물이라 정의할 수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지역의 시대 및 사회적 그리고 건축가 개인적 상황에 대한 맥락을 기저로 하여 조선대학교 본관과 건축가 김한섭의 건축적 상관성을 고찰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로서 보다 심층적 고찰을 위하여 조선대학교 본관의 건축연도⁵⁾를 기준으로 한 1940·50년대의 시간적 범위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 및 사례 조사⁶⁾를 통한 논리적 논증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선행연구, 문헌고찰 및 조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조선대학교 본관의 건립 과정과 해방 이후 광주·전남지역의 건축 상황 및 건축가 김한섭의 역할에 대하여 재조명함으로써 시대·사회적 측면의 관련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3장에서는 문헌고찰과 인터뷰를 통해 건축가 김한섭 개인 및 조직 사회적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조선대학교 본관과 건축가 김한섭의 상관성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조선대학교 본관의 건축적 특성을 분석하고 동시대 건축가 김한섭이 설계한 건축물 중 교육 시설을 중심으로 한 사례조사를 통해 건축적 측면의 조선대학교 본관과 김한섭에 대한 상관성을 고찰하였다.

2. 시대·사회적 측면 고찰 : 지역사회의 연원을 실천한 건축과 건축가

2-1. 최초 민립대학으로서의 조선대학교 본관

조선대학교는 국가 및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하여 조선민립대학설립운동⁷⁾의 정신을 기저로, 1946년 광주지역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민립 대학이다. 이에 더하여 오수열·황승호(2018)은 해방 이후 일제 강점기에 세워진 전문학교가 승격되거나 대부분

5) 조선대학교 본관에 관한 건축연도는 선행연구에 따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선대학교 본관 기록화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조선대학교의 건축연도를 1947년(착공)~1954년(준공)으로 규정하고, 모든 건축연도는 준공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6) 본 연구에서 건축적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김한섭 건축가의 건축물 중 건축 용도에 따른 교육시설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사례조사를 진행하였다.

7)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뒤 일제가 문화정치를 표방하게 되자, 1920년 6월 한규설(韓圭畲)·이상재(李商在)·윤치소(尹致昭) 등 100명이 조선교육회설립발기회를 개최하면서 민족 인재 양성 위해 물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설립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운동은 일제 총독부의 탄압과 국가 경제의 시대적 상황에 의하여 결국 실패하였고 이후 전개되는 민족운동 양상에 있어서 조직적인 단체 결성의 표본이 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8)

재력을 지닌 특정 개인 및 종교단체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여타 대학들과는 달리 조선대학교는 지역민의 염원이 결집되어 처음부터 대학으로 출범한 최초의 지방대학이라고 설명하였다.

민립 대학으로서 조선대학교의 설립 과정을 살펴보면, 1946년 08월 서민호(광주시장)와 박철웅(시청 서무과장)을 주축으로 하여 설립동지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1946년 09월 최영욱 전남 도지사로부터 광주 야간대학원 설립허가를 받았다. 이후 서민호가 전라남도 지사로 취임하게 되면서 1946년 10월 조선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서민호 도지사는 민립 대학 설립을 위해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회장 명의의 기금모금을 허가(1946년 12월)하고 당시 전남도청 운수과장이었던 박철웅에게 기금관리 및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자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⁸⁾ 이에 1947년 12월에는 7만2천명의 회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마침내 1948년 5월 26일에는 미군정청 문교부 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 조선대학」과 조선대학원에서 조선대학교로의 설립을 허가받으며 현재 조선대학교의 기틀을 마련하였다.⁹⁾

이와 같이 조선대학교의 설립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서민호 지사와 박철웅, 그 외 지방 고위관직자, 교육 관계자, 지방유지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을 비롯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염원을 가진 지역민의 헌신적인 노력과 관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당시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특정인의 자산 출현 및 기부금이 없이 설립동지회 회비 및 기부금과 학생 등록금으로만 조선대학교 본관의 건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당시 광주·전남지역의 교육에 대한 열망과 염원의 산물로서의 조선대학교 본관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¹⁰⁾.

2-2. 해방이후 광주지역의 건축과 김한섭

해방 이후 한국 건축은 주체적인 의지와 노력을 기

반으로 새로운 한국 건축의 미래를 구축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건축 활동의 움직임¹¹⁾이 일어났다. 그러나 당시 한국 건축계의 상황은 열악한 경제 환경으로 인해 다양한 건축 활동이 이루어지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일제강점기 시기에 전략적 농업생산지역으로 육성되어, 타 도시에 비하여 부족한 산업기반시설과 더불어 경제적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건축 활동 역시 지극히 한정적이고 소규모로 이루어졌으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인재 양성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학교시설 및 지역 기반 시설 중심의 건축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¹²⁾.

또한 광주지역 건축가의 활동을 살펴보면, 해방 이전에는 김순하(金舜河)¹³⁾의 건축 활동이 주를 이루었고 해방 이후에는 광주·전남지역의 유일한 건축교육기관이었던 송정 공립 공업실수학교(이하 송정 공업학교)¹⁴⁾ 출신의 김한섭, 정옥진¹⁵⁾, 김태만¹⁶⁾, 조선대학교 교수 김우석, 건축 대서사인 박영만¹⁷⁾, 박해룡¹⁸⁾을 주축으로 한 건축 활동이 이루어졌다. 특히 송정 공업학교 출신 중에서도 일본에서 고등건축교육을 받은 유일한 건축가로 지역 건축 활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입지를 다진 인물이 바로 건축가 김한섭이었다.

당시 김한섭은 박영만, 박해룡, 정옥진 등의 지역 건축인과 함께 광주지역 최초 건축 문화 활동 단체인 전

11) 해방이후 서울에서는 건축 전반의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을 위한 조선건축기술단(1945)와 건축사 양상을 위한 조선건축사협회(1945) 등이 설립되어 본격적인 건축 활동의 움직임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조선건축기술단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해산되었고 이후 조선건축사협회(대한건축학회 전신, 1954)이 설립되어 활발한 건축 활동을 이어나갔다. (한승훈, 「해방이후 광주지역 건축활동」,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56쪽)

12) 한승훈, 앞의 논문, 1996; 오수열·황승호, 앞의 논문, 2018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본 저자가 재구성함.

13)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1922년),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1925년)를 졸업하고 전라남도청의 기수로 발령받아 광주로 내려오면서 광주지역 일제강점기 시대 광주·전남의 건축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당시 주요작품으로는 전라남도청사(1932년) 및 전라남도평의원의실(1932년)이 있다. 해방이후에는 상경하여 건축 활동을 이어갔다.

14) 송정 공업학교의 정확한 교명은 송정 공립 공업실수학교로, 관련 서적 및 자료에서 준말로 송정 공업학교가 사용됨

15) 건축대서사, 전남건축문화협회 기술부장, 대한건축사협회 전남지부 2·3대 회장, 전남대학교 초대 영선계장 역임. 주요작품-전남대학교 문리대 합동강의실(1955년), 아세아극장(1968년)

16) 대한건축사협회 전남지부 4대회장 역임, 주요작품-제일극장(1961년), 전남방직주식회사(1966년) 등

17) 건축대서사, 전남건축문화협회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전남지부 초대회장 역임

18) 건축대서사, 전남건축문화협회 부회장 역임

8) 신웅주·김용춘, 「조선대학교 본관의 건축특징에 관한 연구」, 공학기술논문지, 제10권, 1호, 2017, 94쪽

9) 오수열·황승호, 「조선대학교 설립에 대한 서민호의 역할과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86권, 2018, 196쪽

10) 1922년 11월 이상재, 송진우, 한용운 등 47인이 주축이 된 '조선민립대학설립'의 정신을 이어받아, 학교설립의 자본의 주체를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하고 호남인이면 신분과 직업을 막론하고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회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였다고, 문화재청의 『조선대학교 본관 기록화 조사보고서』 언급하고 있다. 이는 당시 남한인구가 1600만명(국가기록원), 호남의 인구(전체인구의 25%)를 고려한다면 호남인들의 교육열정을 이해 할 수 있다. 이는 1988년 한겨레신문의 창간주주가 2만7천명과 비교할 수 있다.

남건축문화협회를 1946년 창립하고, 총무부장을 역임하면서 건축문화 출간 및 농촌주택 개량연구 및 민가 실측 답사 등의 사업을 통해 광주·전남 건축문화 부흥을 위한 적극적인 건축 활동을 이어나갔다¹⁹⁾. 또한 초등학교 표준설계(1946년), 전남대학교 의대 합동 강의실(1947년), 광주사범대학(1957년), 광주사범부속초등학교(1959년) 등의 교육 시설을 중심으로 한 작품 활동을 통해 현실적인 지역 교육 시설을 실현했다. 따라서 건축가 김한섭은 40·50년대 열악한 지역의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건축 활동을 통해 지역 건축계에 지대한 영향을 준 건축가였음을 알 수 있다.

3. 개인·조직관계적 측면 고찰 : 지역사회의 연대적 관계를 갖는 건축과 건축가 김한섭

3-1. 조선대학교와 건축가 김한섭

김한섭은 1920년 제주 태생으로 송정 공업학교를 졸업한 뒤 약 1년간 만주 정부의 건축국에서 근무했다. 학업을 계속하고자 일본대학 고공에 들어간 그는 졸업 후 박길용 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나, 박길용 선생이 작고한 후 전남으로 내려와 목포공업학교에서 교직원 생활을 시작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전남도청에서 영선계장(1946년)으로 근무하면서 조선대학교에 출강하며 왕성한 건축 활동을 이어나갔다. 또한 1950년에는 조선대학교 조교수로 부임하였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2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수학하였고, 1954년 귀국하여 전남대 조교수로 부임한 후 김한섭 건축연구소(1957년)를 개설하여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전개하였다.

위의 내용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건축가 김한섭이 조선대학교에 출강 및 조교수로 재직하였던 시기(1946~50년)와 조선대학교 본관의 설계 및 착공 시기(1946~47년)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조선대학교 본관의 건립과정에서 김한섭의 영향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관조직의 개편과 교육 시설의 수요 증가에 대한 사회적 상황과 지역의 주요 대학이었던 조선대학교 및 전남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였다는 개인적 상황은 건축가로서 교육 시설 중심의 작품 활동을 진행하게 된 전제가 되며 이러한 사실은 조선대학교 본관과 건축가 김한섭의 상관성을 더욱 뒷받침해 준다.

3-2. 조선대학교 설립동지회와 건축가 김한섭

지역 민립대학으로서 조선대학교 건립에 대하여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그 설립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람은 바로 서민호와 박철웅이었다.

1946년 6월 광주시장에 취임한 서민호는 당시 공산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사상이 투철하고 과감한 부하직원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고향 후배인 박철웅을 광주시청 서무과장으로 등용하였다²⁰⁾. 이후 1946년 10월 전라남도 지사로 취임하게 되면서 박철웅도 전라남도 도청 운수 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때 본격적으로 조선대학교의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전남 도지사로서 서민호는 행정기관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당시 운수 과장이었던 박철웅이 이를 자재 수송 및 설립기금모금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현재의 조선대학교 본관의 모습을 갖추 수 있었다²¹⁾.

조선대학교 본관	년도	건축가 김한섭
	1935-39	송정공업학교 졸업 만주국 국무성 건축국 근무
	1939-42	일본대학교공 건축과 입학 및 졸업 박길용 설계사무실 근무
조선대학교설립동지회 창립총회 08월 회장 : 박철웅(시청 서무과장) 고문 : 서민호(광주시장) 광주야간대학원 설립 09월 조선대학원 명칭변경허가 10월 설립기부금 모금 허가 12월 허가 : 서민호 전남지사 모금 : 박철웅 도청 운수과장	1946	전라남도 도청 영선계장 근무 전남건축문화협회 창립 조선대학교 출강
조선대학교 본관 착공 04월 설립동지회원 7만2천명 확보 12월	1947	
	1950	조선대학교 조교수 부임
	1952	일본대학 松井 연구실 연구원
조선대학교 본관(5개동) 준공	1954	
	1955	전남대학교 조교수 부임 및 조선대학교 강의
	1956	대한건축학회 전남지부 창립
	1957	김한섭건축연구소 개설

그림 1. 조선대학교 본관과 건축가 김한섭의 개인·조직적 관계

이와 같이 서민호와 박철웅의 개인적 관계 그리고 조직적 업무관계의 적극적인 협업은 조선대학교 본관의 건립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위의 내용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조선대학교 건립의 주요한 인물인 서민호와 박철웅이 1946년 당시 전남 도청의 도지사와 운수 과장으로 있었으며 김한섭은 영선 계장으로 지역의 모든 건축의 건립과정에 관여하였다는 것이다. 즉

19) 김란기, 「해방직후 건축계의 활동과 성격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6권, 3호, 1997, 118쪽

20) 오수열·황승호, 앞의 논문, 2018, 192쪽

21) 오수열·황승호(2018)의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본 저자가 재구성함.

전남 도지사로서 서민호가 조선대학교 건립에 헌신적이었으며, 운수 과장으로서 박철웅이 같은 조직 내에서 근무한 동료였다는 사실은 관조직의 특성상 영선계장이었던 김한섭이 조선대학교 본관의 설계 및 건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안창모(2000)는 김한섭이 영선계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조직적인 측면에서 당시 고등교육을 받은 영선계 책임자는 많은 역할이 주어진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며, 설계를 담당할 만한 민간건축조직도 사실상 부재하였고, 있다 하여도 송정 공업학교를 졸업하고 건축대사사를 취득한 일부 특정 건축인들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한섭이 맡은 관의 건축조직은 건축 설계와 시공 면에서도 월등한 능력을 갖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적으로 「건축가 김한섭」(1984)에서 김한섭과 김정동의 대담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인터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도에서 일본사람들이 가고 나서 일할 사람이 없으니 일을 좀 해줘야겠다는 간청이 있어서 도청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조선대학 설립을 돕고 강사로 나갔어²²⁾”

또한 조선대학교 본관과 건축가 김한섭의 연관관계에 대해 임재식²³⁾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조선대학교 본관의 설계 및 건립에 김한섭의 상관관계 여부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조선대학교 본관이 완전한 김한섭의 디자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이것은 시대상황에 초점을 둔 디자인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²⁴⁾”

위의 내용에 따라 조선대학교 본관과 건축가 김한섭의 관계를 종합해보면, 조선대학교 설립의 주축이었던 서민호와 박철웅이 김한섭과 같은 전남 도청의 요직에 근무하였고 이후 김한섭이 조선대학교의 조교수로 부임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비록 김한섭이 조선대학교 본관을 직접적으로 설계하였다는 사실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조선대학교 본관과 건축가 김한

섭의 조직적, 개인적인 관계에 따른 업무적 협업이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4. 건축(建築)적 측면 고찰 : 구조미학을 실현한 건축과 건축가

4-1. 실험적 구조미학의 구현으로서 조선대학교 본관
조선대학교 본관은 1947년 4월 착공하여 8년 후인 1954년에 연면적 10,560㎡, 7층의 교사로 준공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한 자재수급의 어려움으로 한때 공사의 진척상황이 부진에 빠진 적도 있었지만, 1954년 원래 계획한 294강당 가운데 전체 계획의 25%에 해당하는 74강당으로 구성된 5개의 대칭형 삼각 박공형태인 본관이 건축되었다.²⁵⁾

조선대학교 본관의 구조는 조적조 거푸집을 사용한 기둥과 슬래브가 일체화된 라멘식 고층 조적조·철근콘크리트 구조이다. 구체적으로는 벽체 부분은 조적조로 구축되었고 기둥은 벽돌 거푸집에 철근콘크리트를 부어 구축되었다. 그리고 보와 슬라브는 기둥과 일체화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이고 지붕은 철제트러스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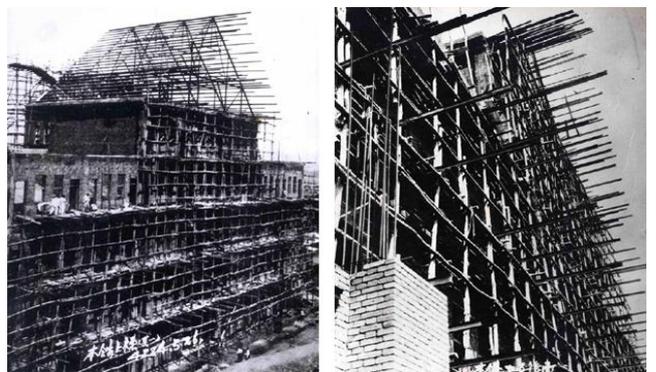


그림 2. 조선대학교 본관 건축구조(좌), 벽돌거푸집(우)

이처럼 조선대학교 본관은 복합적인 구조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당시 초고층 7층 건물로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도는 당대 건축기술의 한계를 지니고 있던 지역 및 한국 건축계의 상황에서 볼 때, 매우 혁신적인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1930~50년대까지 신축된 광주·전남지역 조적조 교육건축의 지붕이 대부분 목조트러스였다²⁶⁾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당시 철제트러스로 구축된 조선대학교 본관이 대단한 건축적 기술을 실현하는 현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25)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앞의 책, 2007, 32쪽

26) 신웅주·김용춘, 앞의 논문, 2017, 98쪽

22) 금성종합설계공사, 『건축가 김한섭』, 토탈북스, 1984, 8쪽

23) 건축사, 전 금성종합건축사무소 이사, 김한섭의 제자로서 전남대학교를 졸업 후 금성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건축가 김한섭과 다수의 건축 작품을 설계함.

24) 2017, 10, 25, 광주건축인의 밤, 건축행사에서 저자가 건축가 임재식과 인터뷰를 진행함.

이렇게 구축된 철근콘크리트 기둥과 철골 트러스 지붕은 조선대학교 본관의 입면 형태와 연계된다. 즉, 철골 트러스에 의한 45°의 박공지붕은 3단의 경사 코너스로 구성되어 명확한 음영을 만들며 전체적인 입면 형태를 구성한다. 또한 철근콘크리트 기둥은 주요 구조체로서 기단부에서 지붕 하단까지 연결되어 강한 수직성을 형성하고 돌출된 기둥은 입면의 양각을 형성한다.

따라서 시대적 여건과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된 벽돌 거푸집 기둥은 구조적 기능을 가지며 수직적 입면 형태의 조형성을 만들어냄으로써 조선대학교 본관을 구조 미학을 실현한 건축으로 완성시킨다.



그림 3. 조선대학교 본관 입면의 수직분할

4-2. 구조미학의 가치를 실현한 건축가 김한섭

건축가 김한섭은 건축가로서 필요한 역량에 대하여 ‘건축가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구조방식으로 공간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것이 아름다움을 갖도록 항상 연구와 검토하는 자세를 가져야한다’²⁷⁾고 하며, 구조와 디자인의 연계성을 강조²⁸⁾하였다. 실질적으로 건축가 김한섭은 직접 구조계산을 하면서 디자인 및 시공에 직접 관여하며 본인의 건축 작품에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에 1940·50년 당시 건축가 김한섭이 설계한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사례조사를 통해 그의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남대학교 의대 합동 강의실은 1947년에 준공된 당시 최초의 현대식 건물로 기록되어있다. 이 작품에 대하여 안창모(2000)는 해방 전 관행적으로 지어진 전형적인 관공서 건물로 건축가 김한섭의 건축적 사고를

27) 금성종합설계공사, 앞의 책, 1984, 19쪽

28) 1930년대 김한섭의 일본유학시절의 건축교육과정은 당시 전시체제라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기술적이고 현실적인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적 영향과 지역 건축의 현실적 상황, 개인적 소신에 따라 설계, 구조, 시공과 연계된 건축적 사고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찾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전남대학교 의대 합동 강의실은 건축가의 디자인 어휘보다는 구조적 안정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다²⁹⁾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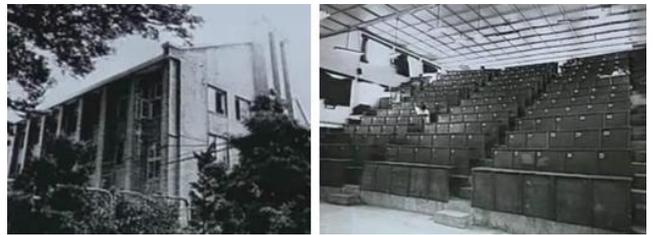


그림 4. 전남대학교 의대 합동강의실(1947년) 전면과 계단강의실

이는 강의실의 계단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상당히 급한 경사를 갖는 계단은 기능적 측면보다 구조체의 안전을 위한 설계방안으로써 외부 수직기둥과 계단 슬라브를 연결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직 기둥은 외부로 돌출되어 강한 수직성을 갖는 입면 형태를 구성한다.

광주사범대학(1957년)은 건축가 김한섭이 마스터 플랜에서 설계까지 전체적인 설계를 진행한 교육시설로서 일반적인 학교건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2층으로 구성된 건축 구조는 구조적 보안을 위해 벽돌 거푸집 철근콘크리트 기둥과 조적조 벽체를 주 구조체로 하였고 지붕은 목조지붕틀에 기와로 마감되었다.



그림 5. 광주사범대학(1957년)의 입면형태

특히 돌출된 벽돌 거푸집 기둥은 조선대학교 본관 및 전남대학교 의대 합동강의실과 같이 수직성이 강한 입면 형태를 형성하고 규칙적 창호분할을 갖는 전면채광창과 함께 변화감 있는 입면형태를 구성하며 건축적 완성도를 높였다.

한편 현관 주 출입구는 곡선의 날렵한 선의 상부구조물을 역삼각형의 기둥이 지지하면서 동적 조형성을 구성하며, 발코니는 얇은 두께의 슬라브가 중앙으로 휘어있는 형태로 시각적 긴장감을 형성하는 조형성을

29) 금성종합설계공사, 앞의 책, 1984, 25쪽

맞는다. 이는 당시 건축기술로서는 구축되기 어려운 건축 형태로서 건축가 김한섭이 직접 시멘트 강도까지 검토한 구조설계와 시공감리를 통해 실현되었다.



그림 6. 광주사범대학(1957년) 현관 주출입구(좌), 발코니(우)

또한 광주사범부속초등학교(1959년)에서도 그의 건축적 조형성의 시도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림 7>에서 보이듯이 현관 주출입구의 상부구조물은 사선의 방향으로 길게 뻗어 나와 네 개의 기둥에 의해 지지가 된다. 육안으로 보아도 상당히 얇은 두께(약 100mm)의 구조물은 상하로 연결되어 당시의 기술적 수준으로 볼 때 상당히 혁신적인 구조적 조형성의 실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광주사범부속초등학교(1959년)년 입면 및 현관 주출입구

따라서 위의 김한섭 건축물과 조선대학교 본관에 주요하게 나타나는 수직분할의 입면 구성은, 구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건축요소인 기둥을 수직선의 디자인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구조와 디자인을 일체화 시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관 주 출입구와 발코니에 나타나는 디자인 언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축적 조형성을 표현하고자 한 건축가 김한섭의 의도적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건축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조를 통한 조형성의 실현 즉 구조미학의 가치를 실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당시 건축기술의 수준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7층 높이(약 36.5M)의 조선대학교 본관을 건축한다는 것은 당연히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 수반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 실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지역 건축 인력이 부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구조적 건축미학을 실현하는 건축가 김한섭의 도움은 절대적이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더불어 조선대학교 본관과 건축가 김한섭건축에 나타나는 수직 입면구성의 구조 미학적 건축 특성의 유사함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판단된다.

조선대학교 본관	상관성	건축가 김한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교육의 열망 · 고등교육시설 필요 · 최초 민립대학으로서의 지역 주요 건축(1946-54) 	<p>시대·사회적 측면</p> <p>지역민의 염원을 실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유일의 고등 교육을 받은 건축가 · 건축문화 활동 · 지역 최고의 건축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동지회 고문 서민호 전라남도지사 근무 (1946) · 설립동지회 회장 박철웅 전남도청 운수과장 근무 (1946) 	<p>개인·조직적 측면</p> <p>지역의 연대적 관계 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도청 영선계장 근무(1946) · 조선대학교 출강 (1946) · 초등학교 표준설계(1946) · 조선대학교 조교수 (1950) · 지역 주요 교육시설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적구조 공법 적용 (조적조, 벽돌가꾸집 철근콘크리트, 칠체트러스) · 실험적 구조기술 실현 (7층의 초고층 건축) · 구조체를 통한 디자인 언어 구현 (수직입면분할) 	<p>건축적 측면</p> <p>구조미학의 구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설계· 시공 감리 · 복합적 구조 공법 적용 (조적조, 벽돌가꾸집 철근콘크리트) · 구조체를 통한 디자인 언어 구현 (수직입면분할) · 실험적 건축 조형 실현 (구조적 건축조형요소 구축) <p>그외 해당년도는 1940-50년대를 기준으로함</p>

그림 8. 조선대학교 본관과 건축가 김한섭의 상관성

5. 결론

지역 근대건축에 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본 연구는 광주지역의 시대·사회적 상황, 개인·조직 관계적 상황 그리고 건축적 특성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선대학교 본관과 건축가 김한섭의 상관성을 고찰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조선대학교 본관은 지역민의 자발적 힘과 염원으로 건립된 사립대학으로 지역적 관심의 정점에 있었으며, 열악한 건축 상황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지역 최고 건축가로서의 김한섭은 1940·50년대의 한정된 지역사회 및 건축계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시대·사회적 접점으로서 상관성을 갖는다.

둘째, 조선대학교 본관 설립 당시 건축가 김한섭이 전남 도청 영선계장을 지내며 조선대학교에서 강의하였고 지역의 주요 교육시설을 설계하였다는 점, 그리고 조선대학교 설립의 주축이었던 서민호 및 박철웅과 전남 도청에서 함께 요직에 근무하였다는 점은 김한섭

의 개인적 상황과 사회조직의 관계적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조선대학교 본관의 설계 및 건립이 건축가 김한섭과 관련되었다는 정황적 타당성을 갖게 한다. 또한 김한섭의 전고(傳稿)에서 조선대학교 건립을 도왔다는 건축가 김한섭의 인터뷰와 제자 임재식의 인터뷰를 통해 조선대학교 본관과 건축가 김한섭이 개인·조직적 관계를 가지며 업무적 연대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당시 초고층 건축물로서 조선대학교 본관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벽돌 조적식과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동시에 사용되어진 벽돌 거푸집 기둥을 사용하였다. 또한 건축가 김한섭은 본인의 작품에서 구조적 요소를 건축적 조형성으로 승화시키면서 구조 미학을 실현한 건축가였다. 따라서 당시 지역의 기술과 재료의 한계로 볼 때, 조선대학교 본관의 건축과정에 있어 구조계산 및 건축시공의 다방면의 기술적 자문이 필요하였을 것이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건축가가 바로 김한섭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정도의 논의는 있을 수 있으나 조선대학교 본관의 설계 및 건축에 있어 건축가 김한섭의 직·간접적인 관련성에 대한 추론은 타당하다 사료된다. 비록 조선대학교 본관의 건축가가 공식적으로 이길성³⁰⁾으로 명기되어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나 기록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는 조선대학교 건립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상에 의한 인물일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조선대학교 본관의 설계자에 대하여 누가 직접적으로 설계하였는가에 대한 상반된 이견은 존재한다. 이는 조선대학교 본관이 한명의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었다 하기에는 박철웅을 비롯한 설립동지회회의 다양한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가 김한섭의 상관성을 통해 새로운 관점의 조선대학교 본관에 대한 연원을 해석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1940·50년대 광주 지역 건축사에 대한 보다 많은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서 지역근대건축의 다양한 연구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1. 김란기, 『해방직후 건축계의 활동과 성격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학회, 제6권, 1997
2. 김용춘·신용주, 「조선대학교 본관특징과 1940,50년대

- 교육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김한섭 건축가의 디자인분석」,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8.5
3.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건축문화사랑』, 23호, 2011.10
4. 금성종합설계공사, 『건축가 김한섭』, 토탈북스, 서울, 1984
5. 박일항·전봉희, 「1950년 수도재건 과정에서 나타난 건축의 고층화」,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8.11
6. 안창모, 「건축가 김한섭 연구」, 경기대학교 논문집, 44권, 2호, 2000
7. 오수열·황승호, 「조선대학교 설립에 대한 서민호의 역할과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86권, 2018
8. 신용주·김용춘, 「조선대학교 본관의 건축특징에 관한 연구」, 공학기술논문지, 제10권, 1호, 2017
9.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선대학교 본관 기록화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7
10. 천득염·신태양·한승훈, 『광주 건축사』, 전남대학교출판부, 2011
11. 최상현·천득염, 『광주 교육시설 100년』, 다지리, 2002
12. 한국의 건축가, 지역건축의 선구자, 김한섭, 다큐멘터리 동영상
13. 한승훈, 「해방이후 광주지역 건축활동」,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14.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건축용어사전』, 성안당, 서울, 2011

접수(2018. 10. 15)

수정(1차: 2018. 12. 12)

게재확정(2018. 12. 21)

30) 각주 4 참조